



빠른 배송에
무료 반품까지
유통가 고객유치전
L1



Life

식음료업계
운동·여가 맞춤
여름 마케팅 펼쳐
L2



- 1 미술장식품과 수경시설이 어우러진 '메이플 갤러리 가든'
2 커다란 팽나무가 식재된 '워터폴 가든'
3 이원경 작가의 '깃-숲' 4 류신정 작가의 '인상:활력'
5 캐나다 천개의 섬을 모티브로 조성한 정원 '메이플 아일랜드 가든'
6 미국풍 나무 수놓아진 '스위트컴 라운지'

/전지원 기자

푸른 물결 위 흐르는 단풍 물결... 자연이 채운 조화의 정원

지하철 잠원·반포역 '초역세권' 단지
학군, 생활 인프라, 광역도로망 갖춰
단풍잎 상징으로 단지만의 공간 꾸며

곳곳에 한여름 더위 날려줄 수경시설
화단, 데크길 등 산책·휴식 공간 풍성
단풍나무, 배롱나무 등 울창한 숲 조성
단지 매력 살리는 자연친화적 작품도

아파트의 미학(美學) 메이플자이

최근 찾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'메이플자이' 아파트. 지난 6월 30일 입주
를 시작했다. 지하철 7호선을 타고 반
포역 6번 출구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
단지가 보인다.

입구를 감싸는 거대한 석재 마감 게
이트는 단지의 위용을 드러낸다. 연회
색 톤은 자칫 밋밋할 수 있
는 입면에 단정하고 고급미를
더하고, '자이(XI)' 로고만
남긴 미니멀한 디자인은 절
제된 품격을 표현한다.
건물 외벽에는 이 단지의
이름을 연상케 하는 단풍잎
모양의 조형물이 시선을 끈
다. 여러 개의 직선 라인 위
에 얹힌 단풍잎은 단지에 상
징성과 생동감을 더한다.



단지 인근에는 ▲원촌초·중 ▲경원
중 ▲신동중 ▲반포고 ▲세화여고 등
이 몰려있고 ▲서초 구립 반포도서관
▲국립중앙도서관 ▲반포 학원가도
인접해 있다.

지하철 3호선 잠원역, 7호선 반포역
과 인접한 초역세권 단지이다. 단지
주변으로 올림픽대로, 한남대교, 경부
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갖춰져 있
다.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. 신세계백
화점, 뉴코아아울렛, 고속터미널·신
사·논현역 주변 중심상업지구와 서울
성모병원도 도보권에 있다.

GS건설이 시공한 메이플자이는 지
하 4층~지상 최고 35층, 29개 동, 전용
면적 43㎡~165㎡ 총 3307가구로 구성
됐다. 단지로 들어가니 메이플자이만
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.

단지 앞에는 '포드라운지'가 위치해
있다. '포드'는 물을 건널 수 있는 얇은
곳을 뜻한다. 스피어 토출구에서 쏟아
지는 물줄기는 한여름 더위를 씻어주
며, 낮게 설계된 석고는 아이들이 뛰
어놀기에도 안전하다.

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도 하
나의 조경으로, 다양한 테마를 구상해
섬세하게 꾸며냈다. '바람 따라 둥지
에 놀러 온 종달새'는 왕왕 부는 바람
을 따라 이웃 둥지에 놀러 온 종달새
를 테마로 했다. 바람의 자유로운 곡
선을 형상화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
이터다.

'아름다운 풍경의 단풍나무 골짜
기'는 알록달록 단풍잎 사이로 펼쳐진
아름다운 풍경의 단풍나무 아래에서
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. '대나무숲의
잠자는 아기판다'에서는 아기판다와
함께 초록빛 바람을 타고 신나는 이야

기가 펼쳐진 대나무 숲속을 뛰어놀 수
있다.

판다 조각상 옆에는 '스톤테라스'가
있다. 단지 경계부 단차가 크게 나는
공간을 돌이 있는 화단과 데크길로 조
성해 휴게와 산책을 유도한 공간이다.
하나의 산수화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
돌무리들과 그 사이 솟아오른 소나무
와의 조화는 메이플자이만의 독특한
경관이다.

'메이플 몽트'는 메이플(단풍)과 몽
트(언덕)를 합친, 단지 중심을 잇는 메
이플가로의 새로운 이름이다. 가을이
되면 다채로운 붉은빛 단풍의 아름다
움이 물들게 된다.

'메이플 아일랜드 가든'은 캐나다의
세인트로렌스강을 따라 떠 있는 천개
의 섬을 모티브로 한 정원이다. 녹지
섬 위 나무들이 물위로 비쳐 그 아름다
움을 더한다. 곡선의 캐스캐이드를 따
라 흐르는 물들은 곡선의 플랜터, 휴
게 캐노피와 어우러져 마치 감미로운
음악을 보는 듯한 풍경을 연출한다.

'워터폴 가든'은 커뮤니티 시설 상
부의 놀이터 파고라와 지상부 수경의
경관을 통합적으로 설계한 정원이다.
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퍼져 나가는 모
습을 화강석으로 겹겹이 올려 표현했
다. 물결 너머 심겨진 커다란 팽나무가
묵묵히 그 풍량을 이겨내는 모습이다.

워터폴 가든에는 '고요한 그늘의 시
인' 팽나무가 자리잡고 있어 도심 속
에서도 공기를 맑게 하고 새들의 안식
처가 되어 준다. 도심의 뿌리 깊은 벗
이자,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자묵으로
사랑받는 나무이다.

'그린레인 가든'은 길게 이어진 수
로 주변으로 변화하는 물소리를 들을

수 있는 휴게공간이다. 블루앤젤측백
과 루브룸 단풍나무가 열지어 깊은 경
관을 연출한다.

'메이플 갤러리 가든'은 티하우스와
데크, 야외 갤러리가 같이 조성된 공
간이다. 곳곳에 배치된 미술장식품과
물에 반사된 단풍나무, 배롱나무의 모
습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다. 가장자
리에 심긴 울창한 나무 아래서 물속에
잠긴 잔잔한 곡선의 불빛을 감상하며
긴 호흡으로 쉴 수 있다.

'프롬나드 가든'은 열린 녹지에 흠
뻘러진 팽나무 사이를 유유히 가로지
르는 동선과 유려한 곡선의 파고라가
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. 바람결에 산
들거리는 사초류를 즐기며 느리게 걸
을 수 있는 산책공간이다.

'스위트컴 라운지'의 구름 형상을
한 바테이블 내 심겨진 나무는 미국풍
나무다. 단풍나무와 비슷한 잎모양을
가지고 있고, 가을에는 다양한 색상으
로 숲을 별무리처럼 수놓는다. 나무
그늘 아래 향긋함을 즐기며 달콤한 휴
식시간을 보낼 수 있다.

여러 작가의 작품들은 단지를 더욱
빛나게 한다. 이원경 작가의 '깃-숲'
은 포근한 깃털의 이미지와 곧게 솟은
나무들과 울창한 숲의 이미지를 함께
읽어냈다.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깃
털이 바람에 의해 흔들리는 부드럽고
우아한 곡선을 시각화했다.
류신정 작가의 '인상:활력'은 패턴이
인간에게 인지와 인식을 주는 현대사
회의 중요한 핵심을 지닌다. 작품은
화색빛 도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
는 동시에 자연 친화적 스토리로 희망
적 생명성을 표현했다.

/전지원 기자 jjw13@metroseoul.co.kr